

CGNTV

M A G A Z I N E | Autumn 2015_Vol.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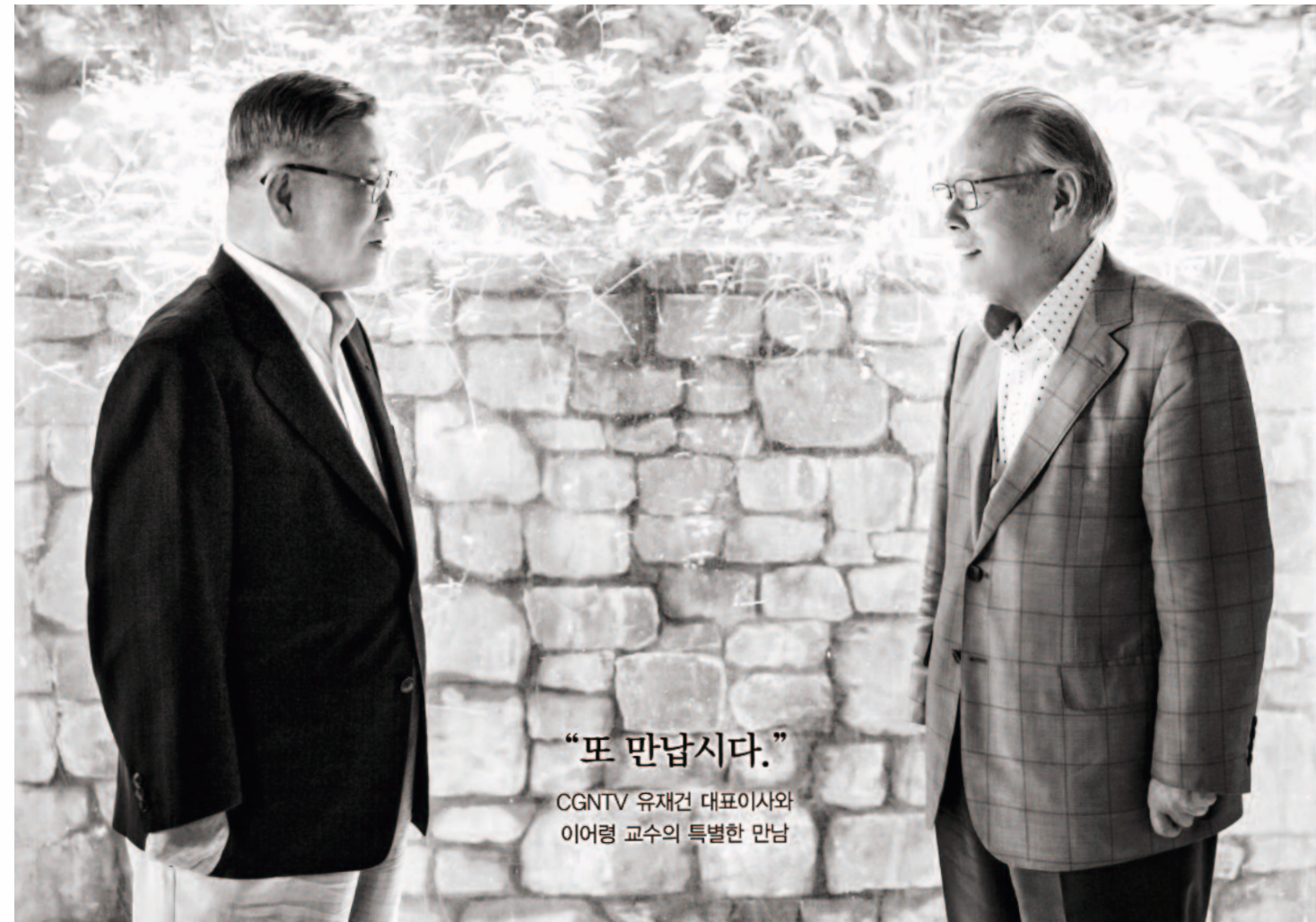
www.cgntv.net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Gloc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59길 8 CGNTV T. 02)796-9800 F. 02)749-6638 www.cgntv.net



“또 만납시다.”

CGNTV 유재건 대표이사와
이어령 교수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형적으로 시간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헐박합니다.
 짹짹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하게 하고 당황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한된 인생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 시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순간'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
 혹은 개인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
 구별된 시간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분별하고
 또 내가 부름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듯한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CGNTV <KNOCK> 중에서)

CONTENTS

Autumn 2015_Vol.10

포토에세이 _ 사진작가 신미식

I. 커버스토리

04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영성을 이야기하다

II. 선교

10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진 헌신 :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14 기획 _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 2.김세지(金世智, 1865~)
 이름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여전도사, 김세지

16 선교지의 아침 _ 시에라리온 이순복 선교사
 간절한 기다림



COVER STORY

영성의 삶에 대한 자기고백부터
 CGNTV를 위한 제언까지
 시대의 멘토 이어령 교수가 청년의 영성으로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Magazine CGN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년 10월 4일 (통권 제 10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유재건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홍보팀
 진행·편집 정원이, 정현우, 조인애
 글 조인애
 사진 정현우, 엄기원, 여준원,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 (02-757-3111), 전경희
 장소협찬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한스(HANS)

III. 특집 <10년의 감동, 10년의 비전>

17 10년 후원의 열매
 StoRy 1. 또 다른 부르심, 후원자 스토리
 StoRy 2. 소프라노 김영미

24 Global Friends 1 _ 2015 CGNTV 직원 아웃리치

28 Global Friends 2 _ CGNTV 글로벌 사역지

IV. CGN 소식

32 CGN 초이스 _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MK의 고백 : 처음 만나는 MK 이야기>

34 현장스케치 _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마지막 촬영현장
 Let's run together!

36 CGN 뉴스 _ 국내, 해외

40 후원안내

41 에필로그 _ CGNTV 운영위원 손한기 장로
 시대적 사명



친구가 되는 것

필리핀 마닐라의 작은 골목. 우연히 들어선 그곳에서
개구쟁이 꼬마 녀석들을 만났다.
한 눈에 봐도 장난 기 많은 녀석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난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름다움은 세상 도처에 숨어있다.
행복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데서 온다.
좋은 사진도 결국 거기서 출발한다.
먼저 상대와 친구가 되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 필리핀

시대의 지성 **이어령**과 영성을 이야기하다



CGNTV가 이 시대의 멘토 이어령 교수를 만났다. 그의 신앙의 근황이 궁금했고 개국 10주년을 맞은 CGNTV의 향후 10년에 관한 제언도 듣고 싶었다. 그는 CGNTV를 통해 방영됐던 2007년 <동경 러브소나타>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며 세례를 받았다. 또 CGNTV 설립자 하용조 목사에 대한 신의가 있어 세례를 받은 후 CGNTV와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근 10년이 흘러 현 CGNTV 대표인 유재건 장로와 다시 이야기 테이블에 앉았다. 동 시대를 산 두 시니어들은 CGNTV 10년 사역, 설립자 하용조 목사와의 일화, 이 교수의 딸 이민아 교수 등 두 사람이 기억하는 공통분모들을 추억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교수는 2010년 출판된 <지성에서 영성으로> 속 그와 같이 영의 세계에 대해 겸손하게 진술했고, 여전히 시대의 석학이고 문필가다운 감수성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이어령 교수의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에서 만난 CGNTV 유재건 장로(좌)와 이어령 교수(우)

1. CGNTV의 지난 10년

“영성의 전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Q. CGNTV가 어느 새 10년이 됐습니다. 미주지사도 10년이 됐고. 지금 CGNTV가 170여 개국에 방송되는데 해외에 나간 지인들마다 복음 방송인데도 동포들이 많이 본다며 오히려 CGNTV에 대해 되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10년이 지났습니다.

CGNTV처럼 세계 멀리 가는 방송이 없죠. 한 교회에서 시작된 방송사가 지구촌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CGNTV 초창기 즈음, 하용조 목사께서 이 사역을 위해 저를 떠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적인 접근과 영적인 접근은 분명 다르니까요.

2007년 <동경 러브 소나타>에서 하 목사께서 강단에 오르자마자 일본인 관중들에게 “제가 여러분께 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을 잘 모르면서 그동안 일본인이란 사실만으로 미워했다고. 제가 방송이나 강연을 많이 하지만 지성이 전달될 수 있는 인원은 많아봐야 100여 명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성은 도교도를 가득 채운 2만여 명의 군중을 일순간 사로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CGNTV도 광야에 울리는 영성의 방송이었지요. 온 세계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영성의 전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재건 장로에게) 어떠세요? 국회에 계실 때보다 소리가 더 멀리 가죠?

저희 딸이 유 장로님과 친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전 그저 단순히 법조인이신 줄만 알았는데 CGNTV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미션 없이는 어려운 일인데. 제 딸이 왜 존경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로 개인을 변론하시다 정계에서 집단을 대변하시고, 이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네요.

2. 세례를 받은 이후

“세례를 받을 때 유독 읊이 떠올랐어요.”

Q.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참 화제가 됐었는데요.

세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하와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맹세 때문이었죠. 제 딸이 눈만 멀지 않는다면 모든 걸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 망막이 벗겨진 흔적도 없다고 했죠. 그땐 무척 기쁘면서도 덜컥 겁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죽었구나 싶었으니까.

하지만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복적인 성향이 있지만 기독교만은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며 자리를 뜨시곤 하셨지요. 복음의 그런 면모들이 늘 신기했고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유독 읊이 떠올랐어요. 난 시험엔 자신이 없는데.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고 죽어서도 천국 가려고 그러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농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세례 이후에 삶이 오히려 읊 같았어요. 딸을 잃고 외손자를 보내고, 하 목사까지 떠나셨으니까. 일생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던 제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요. 아직 제 몸과 마음에 있는 의심과 허영을 치시는 것 같았어요. 크리스천의 길이 무척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했지요.



◀ 2007년 세례를 받고 있는 이어령 교수
▼ 좌측부터 이어령 교수와 딸 이민아 목사, 아내 강인숙 교수



3.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 책은 그 아이가 아기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Q. 최근 출판하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를 읽으면서 따님 이민아 목사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딸 바보셨잖아요. ‘땅 끝 아이들’을 품고 가는 딸을 보고 어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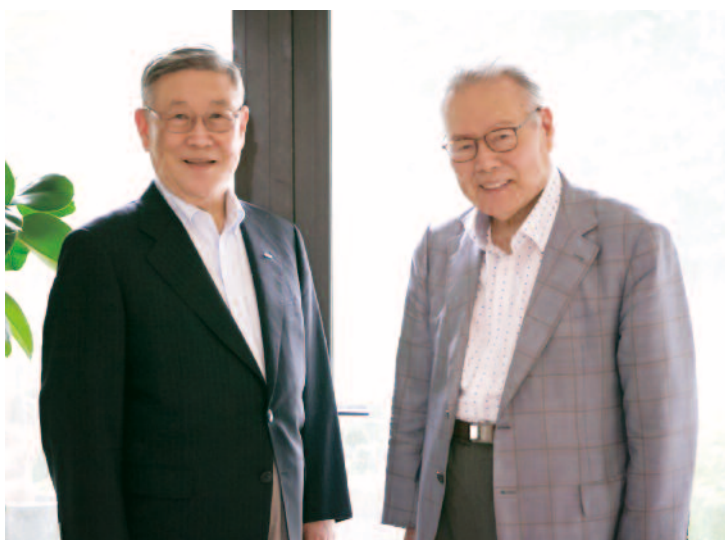


바보 같았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좋은 대학을 갈만 했지만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교를 택했죠. 미국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변호사로 스카웃 됐는데, 싫다며 1년 연봉이 변호사 시절 초봉만도 못한 검사로 직장을 옮겼어요. 암 투병 중에도 전화를 걸면 늘 집에 없고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봉사하러 다녔지요. 부모로서 누가 그 모습을 잘한다 하겠어요. 그 아이 때문에 불평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해왔죠.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네가 옳다 네가 맞다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담은 것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입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는 같다고 했어요. 자기가 연락도 없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 나 인천 공항인데 데리러 와주세요” 하면 내가 나오지 않느냐면서요. 아버지는 조건이 없고 저도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그렇다고 했죠. 논리가 없다고. 한 집나간 소녀가 딸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바로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의 연락을 기다렸다는듯 바로 “나둥!”하고 답변을 보냈다고 해요.

딸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아이는 시험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탁월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시험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더군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아빠가 좋아하니까 열심히 했던 거지!”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남아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중 제가 쓴 시에 ‘내가 큰 집을 지어주었지만 넌 그걸 버렸다. 네가 원하는 집은 땀물에 신발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집...’ 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그 아이가 아기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딸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4. CGNTV 또다시 10년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미디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Q. CGNTV가 또 다시 10년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미디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접근해서 접속하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셨지요. 지금 세속적으로는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경에 가장 접속하기 편한 재미있고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변화하며 전 세계가 다운 받고 서로 네트워킹 하는 ‘CSNS’, ‘SNS’에 ‘Christian’의 ‘C’를 붙여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미디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아쉬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신앙은 온전히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믿거나 해야지 양다리 걸쳐서 크리스천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CGNTV는 이후 10년도 부지런히 성장하고 발전하시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뒤 땀을 열매를 벌써 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내한 선교사 13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그 두 번째 잊혀진 헌신 :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내한 선교사 130주년을 맞아 CGNTV는 한국 선교 역사 속 '잊혀진 시간', '잊혀진 헌신'들을 되짚어 가고 있다. 지난 4월 5일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 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를 방영한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잊혀진 헌신 :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가제)를 준비하고 있다.

<블랙마운틴>은 한국이 푸른 눈의 선교사들을 통해 가난과 질병 속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생되었는지 그 역사의 한 대목을 보여주었다. 선교의 발판에서 한국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그 감동은 오는 10월 25일 선보일 다큐멘터리 <잊혀진 헌신 :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를 통해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잊혀진 헌신...>은 19세기 초 한국 여성 신앙의 초석을 세운 '여선교사들'에 집중했다. 여선교사들은 천대받던 조선의 여성들을 일으켜 복음의 역군으로 세운 숨은 헌신자들이었다. <여선교사>는 그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며 또 한 번 잊혀진 역사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여선교사>를 기다리며 그 밑그림이 될 제작노트를 살펴봤다.

Page 1. 스크랜턴, 로제타 홀 등 여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 주목, 그들을 기억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찾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의 여선교사 수는 전체 선교사의 60%였다. 한국 선교 역사의 시작인 언더우드 곁에는 그의 아내 릴리어스 언더우드가 있었고 의료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 곁에는 대한민국 여성 신교육에 효시를 이루었던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있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대표되는 선교역사의 뒤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 선교의 숨은 역군 스크랜턴 모자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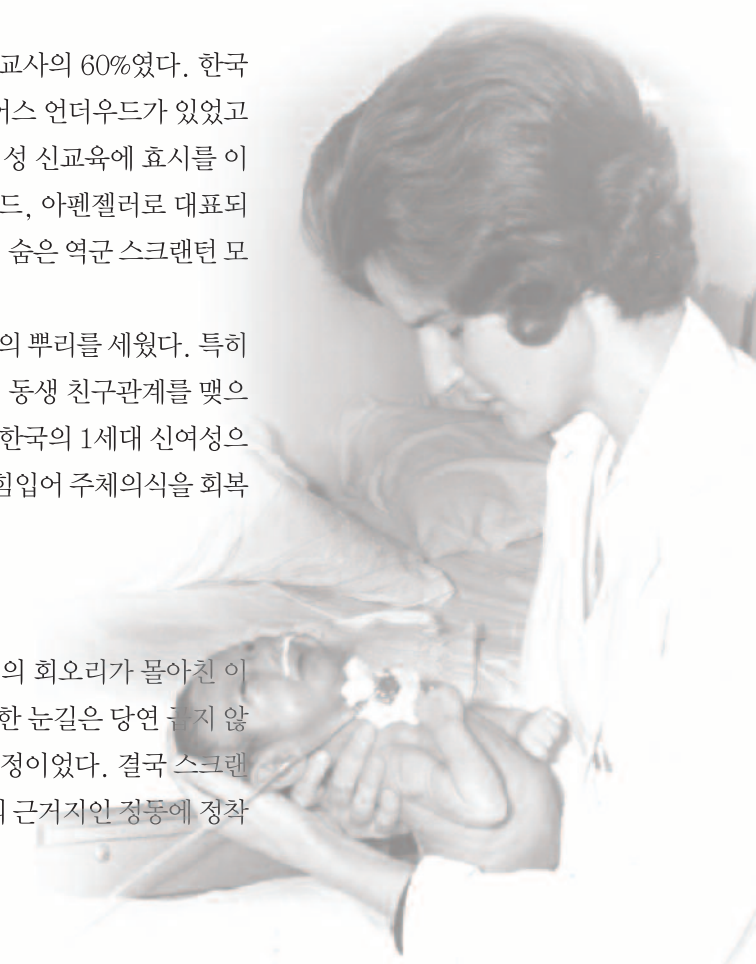
여선교사들은 조선 여성들을 깨우며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를 세웠다. 특히 중, 과부, 소박데기, 장애인 등 소외받은 이들과 언니 동생 친구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그에 따라 많은 소녀들이 한국의 1세대 신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여선교사들의 헌신에 힘입어 주체의식을 회복하고 그녀들을 이어 한국 선교의 맥을 이어갔다.

Page 2.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스크랜턴이 조선에 발을 디딘 것은 1885년 갑신정변의 회오리가 몰아친 이듬해였다. 조선의 정국은 극히 불안했고 외국인에 대한 눈길은 당연하지 않았다. 입국 전 일본에 머물며 형세를 지켜봐야하는 실정이었다. 결국 스크랜턴은 현해탄을 건너 서울 주재 외국 공관과 선교사들의 근거지인 정동에 정착



여선교사와 할머니





메리 스크랜턴

했다.

이후 그녀는 이화학당을 세웠다. 당시 천대받던 조선의 여자들이 푸른 눈의 양도깨비 외국인들에게 배운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부녀자들은 창문을 닫고 숨었고 아이들은 울며 달아났다.” (스크랜턴) 그러던 중 어느 관리의 소실이 외국어를 배워 장차 왕비의 통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처음 학당 문을 두드렸다. 그 뒤로 가난한 집 딸, 버려진 콜레라 환자들 틈에서 거뒀은 딸 등이 이화학당의 학생들이 돼 갔다.

보구여관은 1887년 정동 이화학당 구내에 세워진 여성 전문 병원(1912년 동대문으로 옮겨 신축한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으로 그녀는 건립과 사역을 도왔다.

Page 3. 의료사역과 여성 교육에 헌신한 또 한 명의 여선교사 로제타 홀

여의사였던 로제타 홀은 보구여관에서 의료 사역을 펼쳤다. 보구여관은 미국 감리회 여선교부가 경영하던 여성 전용 병원으로 ‘남녀유별’을 강조하던 조선의 분위기 때문에 여성 의사들을 불러와 설립한 것이다. 그녀는 1890년에 조선에 들어와 남편과 아이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43년 동안 의료선교를 펼쳤다. 또 이화학당에서 자라나던 한국인 10대 소녀들을 우리나라 1세대 근대 여성으로 키워냈다. 그 중 김점동은 한국 최초의 양의사인 박 에스더가 됐고, 동시에 최초로 조선의 여성 선교사로 활동했다. 로제타는 박 에스더를 ‘나의 분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생 서로 의지했고 그녀의 성장을 도왔다.



박 에스더와 로제타 홀



1928년 9월 조선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여자의학교인 경성여자의학전문대학 제1회 졸업생. (뒷줄 왼쪽 - 학교 설립자 로제타 홀)



평양에서 사역한 내한 선교사들

Page 4. 박 에스더, 여메레(여메리) 등 한국인 여성리더들이 등장하다

여메레(메리)는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는 점괘에 겁을 먹은 부모가 이화학당에 맡기고 간 딸이다. 메리 스크랜턴은 여메레를 양녀로 삼았다. 메레는 그녀의 세례명인 ‘메어리’를 부르기 쉽게



김점동 (박 에스더)

칭한 것이다. 스크랜턴의 양녀가 된 여메레(메리)는 능력 있고 신실한 사역자로, 교육자로, 전도사로 성장했다. 그녀는 훗날 고종 황제 앞에서 영어 통역을 맡았고 평양 진명여고 교장에 올랐다.

박 에스더는 로제타 홀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그녀의 뒤를 이어 매년 5천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의료선교에 매진했다.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홀 가족이 아꼈던 박 에스더가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 한국에 결핵요양소를 세웠다. 그는 1932년,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 썰을 한국 최초로 도입했다.

Page 5. 여선교사 신앙의 유산, 한국의 여선교사들을 낳다

여선교사들의 헌신은 1세대 한국인 여선교사들을 낳았다. 또 전도부인들을 세워 여성 전도 모임을 만들게 된다. 그 역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여전도회를 낳았고, 세계를 향해 나서는 한국 여선교사들을 낳는 불씨가 됐다.

Page 6. 선교 토크 <여성 선교사 이야기>를 나눈다

다큐멘터리 방영에 앞서 ‘선교 토크’와 ‘기자간담회’를 열어, 좀 더 열린 공간에서 여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본다. 방영 전 진행되는 두 자리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데 좀 더 이해와 감동을 더할 것이다. 선교토크 <여성·사랑·복음>(방송 10월말)은 진재혁(지구촌교회) 목사와 이성미(방송인) 씨가 진행을 맡고 다큐에 도움을 주었던 이덕주(감신대) 교수, 이경숙(이화여대) 교수, 박정희(‘닥터 로제타 홀’의 저자) 작가가 패널로 출연해 여성 선교사의 역할, 그들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과 ‘로제타 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 녹화 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잊혀진 그들의 헌신을 전한다.

- <잊혀진 헌신 :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방영일: 10월 25일
- 선교토크 <여성·사랑·복음> 방영일: 10월말



광혜여원수술실



이름과 함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여전도사, 김세지

한국 땅에 복음이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처럼, 천대받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일군으로 일어섰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듯, 부름 받은 전도자들은 자신의 숨은 재주를 발견하며 한국 역사의 새 길을 트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 전도자들의 열성은 발군이었다. 복음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얻은 그녀들은 한국 기독교 부흥의 큰 모판이 됐다. 여전도사 김세지도 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다. 그녀는 '한국교회 최초 영아부', '평양 과부회', '대한애국부인회' 를 조직했고, 누구보다 많은 영혼들을 만났던 전도자였다. CGNTV 매거진에서는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을 되짚어 보며, 지난 호 '서상륜' 에 이어 여전도사 김세지를 살펴봤다.

1. 부르심 - 전도자의 이름으로

김세지는 1865년 평남 평원에서 태어났다. 여성들이 누구의 딸,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던 시대, 그녀는 세례를 받고 세례명 '세디(Sadie)' 라는 이름을 얻었다. '세지(世智)' 는 '세디' 의 한자음역이다. 이 일을 분기점으로 그녀의 인생은 평범한 아낙에서 열정적인 전도자로 변했다. 그녀의 행보는 그녀에게 세례를 준 선교사들도 놀랄 정도였다.

그녀는 1893년 남편 김종겸의 8촌 아우 오석형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다. 오석형은 강서 출신의 노름꾼이었는데 감리교 선교사 홀(W. J. Hall)이 평양에 정착하면서 전도를 받은 인물이다. 김세지는 주책잡기에 빠진 남편의 마음을 바로잡아 보고자 오석형을 따라 교회에 나갔다. 김종겸은 1895년 주일 아침, 묘한 환상을 본 후 교회에 발을 디뎠다.

그녀는 1896년 선교사 노블(M. W. Noble) 부인을 만나 본격적으로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문맹이었지만 노블 부인이 조직한 여성기도



회 모임 '오일회(五日會)' 에 나가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했다. 이후 1899년 노블 부인의 추천을 받아 미국 감리회 여성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전도부인(Bible Woman)이 됐다. 그녀 이외에도 김(金)다비다, 이(李)이사벨, 김(金)서커스, 강(姜)도르가 등이 함께 전도부인 직책을 맡아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도, 황해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김세지는 김다비다와 짝이 되어 평양 시내와 대동강 건너 북룡동, 칠산리, 왜성 등을 돌며 전도했다.

그녀는 1902년 남편 김종겸이 사망한 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신앙으로 극복하며 더욱 전도에 매진했다. 노블 부인은 자신의 선교 보고서에 김세지가 한 해 동안 2016회에 달하는 가정을 방문하고, 상을 당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위로는 물론 시체를 다루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도왔다고 적었다. 김세지는 매년 2000~3000회 가정들을 방문했고 매년 30여 명의 새 신자를 얻었다.

2. 여전도사 - 까막눈에서 여성 복음 운동 지도자로

교회 내 여성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김세지는 1903년 교회 여성들로 구성된 '보호여회' (保護女會 : Ladies Aid Society)를 조직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조직이었으나 여성들의 자기능력 계발과 조직적인 구제활동에도 힘썼다. 평양 보호여회를 창설하고 회장이 된 그녀는 평양지역 여성운동가로 부상했고, 1916년에는 교회 내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 '과부회' (Widows Relief Association)도 조직, 과부들의 자립을 도왔다.

그녀의 사명은 시대적 사명으로까지 이어져 3·1 운동 이후, 투옥인사 가족구휼, 독립운동자금 모금, 해외에서 밀파된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도 지원했다. 그 사역에 대표적인 조직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생된 '대한애국부인회' 인데, 김세지는 부재무부장 직책으로 감리교회 여성들의 모금을 담당했다.

이 일로 그녀는 경찰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심하게 건강이 쇠약해졌지만 1921년 석방된 후 와해된 보호여회를 다시 70여 명으로 재건해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에 힘썼다. 1922년 5월 15일, 평양 교인들은 김세지가 보여 준 헌신적인 활동을 기억하며 '김세지 전도부인 성역 25주년 기념식' 을 남산현교회에서 성대하게 베풀었다. 그녀는 1925년 전도부인직에서 은퇴했고, 1933년 제3회 감리교 종교교육대회에서 종교교육 공로자 표창을 받았다.

출처 | 이덕주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이야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2003)
*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은 CGNTV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일흔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래동안 일흔이 업시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 받던 날로부터 녀자된 권리에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녀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만하다.

이덕주

- ▶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소장 /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
- ▶ 저서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 <한국교회와 여성> 외 다수



간절한 기다림

아프리카 서부 작은 나라 시에라리온에서 선교사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그곳에서도 CGNTV를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였다. '도와주세요'라고 시작된 메일에는, 이름도 낯선 나라 시에라리온이 얼마나 복음과 소통, 문화에서 고립된 지역인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지 TV도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는 시에라리온은 아직 CGNTV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CGNTV는 10년의 비전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한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가 바빠졌다.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제목 : 도와주세요.

저희는 서부 아프리카 해안지대에 있는 시에라리온에서 25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순복, 조문숙 선교사입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으로 피난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지 성도들에게 쌀을 보내며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CGNTV 설치를 신청했는데 시에라리온은 CGNTV 전파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문화 혜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현지 TV가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지 못하고, 국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거의 볼 수 없고 다녀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버려진 곳입니다. 한국 선교사도 최근에 열 가정 정도 되었는데 그나마도 에볼라 등의 이유로 네댓 가정으로 준 상태입니다. 이런 한국 선교사들과 소수의 한국인들(20-30여명)을 위해 이곳이 CGNTV 전파 수신가능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현지 학생들의 신학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CGNTV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에라리온 이순복, 조문숙 선교사 드림

10년의 감동, 10년의 비전



StoRy 1.

또 다른 부르심 후원자 스토리

01. 이 아이를 하나님께
02. 생명을 수혈하는 마음
03. 해외 인턴 생활
04. 지혜로운 딸이 되길
05. 선교 훈련을 오가며
06. 추억이 된 이야기
07. 결혼생활의 위기에서

StoRy 2.

소프라노 김영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프리마돈나

CGNTV는 감사 감동했다는 영혼들의 고백이 사역의 이정표가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올해로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은 CGNTV는 그 10년 사이 남몰래 CGNTV 후원자를 자처했던 이들의 사연이 궁금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세대별로 만난 7명의 후원자와 소프라노 김영미 씨는 말 그대로, 감동(感動) 받은 자, 먼저 가슴으로 느꼈기에 움직인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CGNTV는 부지중에 찾아 온 기델 언덕, 물 댄 동산이었다.

StoRy 1. 또 다른 부르심 후원자 스토리

01.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박시은(6), 주언(3)

김민정(41, 여) 씨는 CGNTV 개국 이듬해인 2006년 시은, 주언 두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투병 중이었던 그녀는 늘 병의 기운에 눌린 듯 마음이 무거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렵게 얻은 첫째 딸 시은이 마저 7개월째 출산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그녀는 CGNTV를 만나기 전 불신자였다. 친구의 전도로 말씀을 알게 됐고 믿음도 싹텄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때 친구가 눈앞에 보여주었던 것이 CGNTV였다. 그녀는 CGNTV를 보면서 행복했다. 어려운 와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놀라웠다. 남편의 직업 때문에 외국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 가는 곳마다 CGNTV와 동행할 수 있어 더욱 위로가 됐다. 어려운 출산은 그녀에게 인생에 또 하나의 큰 난관이었지만, CGNTV를 보며 말씀으로 견비돼 갔고,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열방을 품게 됐다.



02. 생명을 수혈하는 마음

김설빈(17), 세준(15), 현준(5)

김설빈(17), 세준(15), 현준(5) 세 형제의 용돈 통장에는 매달 'CGNTV 후원'이 찍힌다. 어머니와 그들이 상의한 용돈 목록에 CGNTV 후원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설빈 양 어머니는 7년 전 예배 시간에 CGNTV 영상을 봤다. 선교에 비전이 있었던 그녀는 안테나 하나에 감격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울컥했고 남편을 이끌어 각자의 이름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간 어린이 구제 기관에도 후원을 해왔는데, 더 나아가 아이들이 복음으로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아이들 이름으로도 CGNTV 후원을 시작했다. 그녀는 CGNTV가 혈관처럼 느껴진다.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생명의 근본이 되는 곳



이듯 CGNTV도 생명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 가기 때문이다. 그녀의 가족들은 오늘도 고독, 어두운 세력 등과 싸우는 선교사들이 CGNTV를 통해 흘러가는 영적 양식에 힘입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03. 해외 인턴 생활

신드보라(29)

StoRy 1.

20대 청년 신드보라 씨는 취업 후, 해외로 인턴을 나가게 됐다. 기독교 인구가 적었던 그 나라에선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또 몇몇 한인교회를 찾아가도 진리에 관한 의심과 경계심이 앞서 예배가 그리 편치 않았다. 그때, 필요한 신앙콘텐츠를 찾아보곤 했던 CGNTV가 떠올랐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지나치곤 했던 CGNTV의 예배와 말씀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했다. 찬양도 마음껏 불렀고, 말씀 강해를 통해 성경도 더 깊이 배워갔다. CGNTV 후원은 그간 '취직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미뤘었는데, CGNTV가 오지 선교사들과 타지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지 이해됐다. 그래서 돌아와 후원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여 선지자 드보라의 이름을 붙여준 그녀의 부모들은 안정된 직장, 안락한 가정, 사회적 직위를 모두 내려놓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다고 한다. 지금은 다시 돌아와 다문화 사역 중인데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CGNTV가 해외를 비롯해 국내 선교사들에게도 더욱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04. 지혜로운 딸이 되길

문지영(39)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딸이 되길 원합니다." 30대 후원자 문지영 씨가 늘 품고 있는 가슴 속 기도다. 늘 CGNTV를 시청하는 그녀의 일상엔 그녀의 그런 바람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새벽 다섯 시 CGNTV로 알람을 맞춰둔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중 방송되는 맞춤특강 <나침반>은 그녀의 멘토이고, 요일별 목사님들의 말씀강해는 소중한 영의 양식이다.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 한창 공부중인 그녀는 학원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CGNTV를 켜둔다. 간혹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보기도 하는데, 우울증이 있었던 그녀의 한 친구는



한동안 '생명의 삶'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그 양식을 울산에 사시는 부모님들께도 소개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따라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의 신자였는데 방송을 접한 후 찬양을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출석교회에 성경공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부모님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한다. 후원을 통해 선교지 곳곳을 품은 그녀에겐 울산도 또 한 곳의 선교지다.

05. 선교 훈련을 오가며

김예분(43)

StoKy 1.

06. 추억이 된 이야기

조성근(76)

미스코리아이자 방송인인 김예분 씨는 2004년 '경배와 찬양' 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다. '경배와 찬양' 바로 옆 건물이었던 CGNTV는 그녀가 늘 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한창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시절 속 풍경이어선지 CGNTV는 그녀의 기억 속에 특별하게 남아있다. 지금은 친정처럼 느껴지고 따뜻한 주님의 집 같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에서 예배한다. 그녀는 방송과 함께 최근 여러 가지 요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기아대책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고 싶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자신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하고 있다. 그녀가 CGNTV 후원 영상을 보고 후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한 순간에 결정된 일만은 아니다.



온누리교회 조성근 장로는 CGNTV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CGNTV 후원자였다. CGNTV 설립자 고(故) 하용조 목사에 대한 신뢰와 비전만 보고 뜻을 같이 한 것이다. "2004년 경 하목사님께서 안테나 몇 개를 후원해 달라고 하셨어요. 방송사역을 얘기하실 때 이미 예견한 일이었죠. 후원이 필요한 사역이라고 하셨어요." 조 장로에게 CGNTV는 설립자와 함께 꿈꿨던 기도와 비전의 터전이다. 또 은혜의 때를 추억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조 장로는 매 주일 CGNTV로 온누리교회 3부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TV로 3부 예배를 보면서 오랫동안



안 섬겨왔던 성가대 대원들도 보고 말씀도 듣는다. "하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성가대를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저에게 충무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웃음)" 그에게 CGNTV를 후원하게 된 계기를 물으면, 이야기는 결국 설립자에 대한 추억이 답으로 돌아온다.

StoKy 1.



07. 결혼생활의 위기에서

도성해(47), 안수영(45) 부부

도성해, 안수영 씨는 CGNTV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2006년 10월 결혼 10년 차였던 부부는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주변의 권유를 받아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하가훈)에 참석했지만 별 진전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지도 목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20년 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부부는 다시 출석할 교회를 찾았고 부친 온누리교회를 선택했다. 당시 교회에선 새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부부는 아이들이 어려서 참석이 어려웠다. 그때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됐다. 두 사람이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예배를 드렸다.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주신 말씀도 남달랐다. 이후 남편 도성해 씨는 CGNTV의 모든 VOD를 1년여 동안 거의 매일 시청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보다 기다려졌다. 강의를 들으며 성경 통독도 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직업 때문에 술, 담배도 많이 했는데 모두 끊었다. 아내 안수영 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병상에 머물 때에도 모니터만 열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 힘이 되고 감사했다. 2007년, 부부는 동경 러브소나타에 함께 다녀왔다. 선교 현장을 보며 귀한 복음이 전 세계 어디서나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 피부로 와 닿았다. CGNTV는 하나님의 마음 같았고, 후원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StoRy 2. 소프라노 김영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프리마돈나

“CGNTV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저의 꿈은 노래로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CGNTV를 후원하고 함께 걷어가는 이유입니다.”

온누리교회와 CGNTV가 주관하는 대단위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가 올 상반기 <교토 러브소나타>까지 총 22회 진행했다. 최근 오페라 <라보엠2015> 공연을 마친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는 일본 땅을 향한 이 우직한 여정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동행한 사역자다. 일본 복음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신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CGNTV 초창기부터 후원을 통해 CGNTV 사역을 돕고 있다. 그녀는 “은혜를 받은 자는 자꾸 드리고 싶어진다”는 말로 자신이 택한 행보의 이유를 말했다.

그녀는 20여 년 전 우울증과 폐쇄 공포증을 앓았다. 여러 가지 영육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 기도 중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녀는 그간 말씀을 편한



데로 믿은 것을 회개했다. 병증이 사라졌고 믿음이 견고해져 갔다. 자신의 찬양도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며 신앙의 전환점을 맞았다. 분명한 은혜의 체험이 지금 그녀의 섬김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더불어 그녀는 국내외 곳곳에서 무대에 서고 여행하면서 CGNTV와 <러브소나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인 것을 절감했다.

“<러브소나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저 쇼를 구경하기 위해 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던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메시지에 귀를 엽니다. 공연 끝에는 출연자와 관객들이 모두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데,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줄 몰라 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초청자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고백하죠.” 그녀는 집회에 깊은 인상을 받는 일본인들에게 이후에도 CGNTV를 통해 꾸준히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다.

직업상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외 여행이 잦은 그녀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CGNTV 시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 일본, 유럽 등 객지에 도착해 어딘지 외롭고 불안할 때 CGNTV를 만나면 고향에 있는 듯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CGNTV에 대해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고 소개했다. “많은 크리스천 방송들이 있지만 CGNTV는 분명한 고유의 역할이 있다”며 “이 사역은 이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더라도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그녀는 강단에 서는 것 이외에도 독창회, ‘보혈 2집’ 녹음 등 여러 활동들이 계획돼 있다. 바쁜 일정이지만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녀 특유의 편안함이 깃들여 보인다. 인터뷰 장소 지근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그녀는 3년 전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왔다. “최상의 무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그녀가 “이제 교회 근처에서 머무르며 사는 거죠”라며 웃는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녀의 삶 전반이 때 무대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인듯 싶었다.

2015 CGNTV 직원 아웃리치

CGNTV 10년,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올 여름에도 CGNTV 전 직원들이 13개 팀으로 나뉘어 선교지 곳곳으로 떠났다. 선교지를 밟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르고 고른 선물을 전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CGNTV 안테나를 달아주었다. 때론 전파가 안 잡히고, 설치하는데 10시간이 넘기도 했지만 방송이 나오는 순간, 선교지도 CGNTV도 모두 한마음이었다. '떨어져 있어도 이제 우린 CGNTV를 통해 늘 서로를 기억합니다.' 선교지의 내음을 고스란히 담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직원들의 지난 사역 풍경들을 전한다.



〈대만 A팀〉
3. 대만 원주민 교회를 찾아가 워십 교육 사역을 마치고 함께 찍은 단체사진
4. 타이베이 현지 목사 가정을 찾아가 CGNTV 안테나 AS를 하고 있는 모습



〈방글라데시 팀〉
1. 필마리 가나안 초등학교에서 단체사진
2. 울리볼 가나안 초등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조세희 선교사를 위한 안테나 설치 장면. 현지 학교 직원들과 함께 설치해서 더욱 뜻깊었다.



〈대만 B팀〉
5. 세계학기인복음대회에서 러우주등 주석(세계학기인 복음협회) 인터뷰 중인 보도팀 권지연 팀장
6. 빛속에서도 선교사님을 위해 CGNTV 안테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형제들 모습





7



8

〈스리랑카 팀〉

- 7. 디코위타 교회에 안테나 설치 장면. CGNTV를 몹시 보고 싶어 하시던 현지인 목회자가 매우 기뻐했다. 스리랑카는 위성신호가 약해 기본 설치 시간이 열 시간 이상 걸렸다.
- 8 선교사역지는 해피센터를 방문해 이곳에서 스티커, 페이스페인팅, 줄넘기로 스리랑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태국 A팀〉

- 11. 선교사 사역지인 촌쁘리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아웃리치 팀. 이곳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이날 아이들은 팀원들의 사인을 받아갔다.



11



12

〈국내 진도팀〉

- 12 전남 진도 중성교회 사택에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고 성도 분들 장수사진 촬영하여 액자 작업을 했다. 안테나 설치 작업을 위해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돌을 쌓아 1.3M 되는 길이의 벽을 만들었다.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



9

〈일본 A팀〉

- 9. 신호야 잡혀라!!!!
- 10. 교회를 세우는 심정으로... 교회 보수 사역중인 이상욱 팀장



10

〈캄보디아 팀〉

- 13. 캄보디아 우동 지역에 있는 International Glory School 아이들을 위한 풍선사역 모습
- 14. International Glory School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마친 뒤 기념사진 찍는 모습



13



14

선교지로 한 걸음 더 CGNTV 글로벌 사역지

CGNTV가 지난 8월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과 함께 중화권 선교를 위한 ‘홍콩 CGN World’ 를 설립했다. 9월 9일에는 태국 최대 교단인 CCT와 업무협약을 맺고 태국 선교를 위한 기독교 방송국 설립을 약속했다. 선교지의 한 영혼을 위한 또 다른 협력 모델들이 마련된 것이다.

선교지를 위한 이러한 협력은 CGNTV가 글로벌 사역지들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꾸준히 밟아 온 길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버하는 지역 더 깊숙이 들어가는 CGNTV. 다가올 10년을 내다보며 글로벌 사역지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홍콩, CGN World’가 열어 갈 더 멋진 세상

CGNTV와 NGO ‘더 멋진 세상’ 이 공동 설립한 ‘홍콩 CGN World’ 가 지난 8월 5일 홍콩 아이콘호텔에서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중화권 선교를 위한 첫 발을 뒀다. 다만 CGNTV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중화권 사역이 보다 강화된 것이다.

CGNTV 유재건 대표이사는 “홍콩 CGN World 설립이 중화권 복음화는 물론 동남아시아, 극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협력 모델의 시작 같다” 고 소감을 밝혔다. 더 멋진 세상’의 김광동 주홍콩 총영사는 “‘더 멋진 세상’ 이 개발하는 지역마다 CGNTV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홍콩 CGN World는 지난 8월 6일 홍콩 ‘창세TV’ 와 업무 협약을 맺고 콘텐츠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세TV는 홍콩의 미디어 기업인 영음사단이 2003년 설립한 방송국으로, 24시간 위성 및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 대



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중화권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공동 제작, 프로그램 교환, 복음적 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아시아 지역 기독교 방송사들이 모여 아시아 기독교 방송의 미래를 준비하는 ACMC(Asia Christian Media Conference)를 공동 기획하고 있다.

미주, 현지 협력 기반 자체 운영 체제 중남미 리더십 양성에 새 패러다임으로...

개국 10주년을 맞은 미주 CGNTV는 한인교회 및 기독교단체들과 네트워크 하며 미주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요 한인교회들이 미주 CGN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앞장서 도우며 축하했다. 또 10주년을 기점으로 남가주의 대표적 목회자 2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고, 미셸이 넷워드 대표 등 15명이 후원회 운영위원이 됐다. 한인기독교커뮤니티 개발협회(KCCD·임혜빈 회장)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사역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하와이, 알래스카를 포함해 미주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미주 CGNTV는 현재 중남미 선교지에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하며 교계 리더십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CGNTV의 신학강좌를 통해 중남미 8개국, 102개 캠퍼스 목회자들을 교육한다. 22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있고 현재 졸업생 1020명, 재학생 1497명이다. 이와 관련한 학사 관리는 과테말라에 있는 월드비전신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미주 CGNTV는 24시간 공중파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향후 중남미 선교를 위한 스페인어 콘텐츠를 확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일본, 복음화의 미래를 위해...신학교, 목회자, 어린이 집중 새 스튜디오 설립 추진

일본 CGNTV는 2015년 ‘신학교 활성화’, ‘차세대 목회자 양성’, ‘어린이 교회학교 사역(CS)’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사역자가 부족해 무목교회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차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약하다. 이에 따라 일본 CGNTV는 네트워크 관계인 전국 47개현 1600개 교회와 연합해

좌담회 및 신학강좌 등을 기획하고, 어린이 신앙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무목교회에 안테나 설치를 지원해 각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장 주력하는 사역 중 하나기도 하다. 일본 CGNTV 자체 설문에 따르면, 일본인들도 CGNTV에 무목교회 지원과 어린이 청소년 사역 프로그램들을 가장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 CGNTV는 지역협력목회자들과 손잡고 일본 내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를 개최하고 있고, <창조과학 일한러브크리에이션>을 설립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또한 자체 NGO인 '아가페CGN'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진 피해 지역을 돕고 있다. 현재 일본 CGNTV는 개국 10주년을 앞두고 좀더 원활한 방송 선교 시스템을 위한 스튜디오 설립과 사무실 이전, 법인화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대만, 중화권 선교 교육 프로그램 강화
태국, 교단들과 연합 태국 선교에 활로 개척**

대만 CGNTV는 중화권 선교 교육 방송이란 정체성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만 성광신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박사 반 강의, 세미나 등을 제작하고 있다. 또 제작자문위원회를 설립해 대만을 위한 콘텐츠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듣고 있다. 작년 9명이었던 자문위원회는 올해 11명으로 확대됐고, 설립 7주년 감사예배도 이들의 협력으로 은혜롭게 진행됐다. 현재 대만 CGNTV는 사

역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타이중과 까오슝 지역의 신학교들과 접촉 중이다. 또 대만 내 사회 문제로 꼽히고 있는 가정 문제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가정 프로그램들도 제작할 계획이다.

태국 CGNTV는 아시아 불교권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2010년 방콕에 터를 잡은 이후 그간 CCT, EFT, 침례교단 등 태국 내 교단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양질의 말씀을 보급하는데 힘써왔다. 태국 내 유명 목회자들의 10분 메시지, 말씀 강해를 비롯해 각종 세



미나 및 큐티 보급에 중점을 두었고, 방송된 프로그램은 DVD로 제작해 시골 무목교회 등에 보급해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CGNTV와 태국 최대 교단 CCT와의 업무협약이 진행돼 태국 선교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태국 현지 기독교방송국 설립을 목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를 위해 방송설립위원회를 만들어 2017년까지 함께 재정을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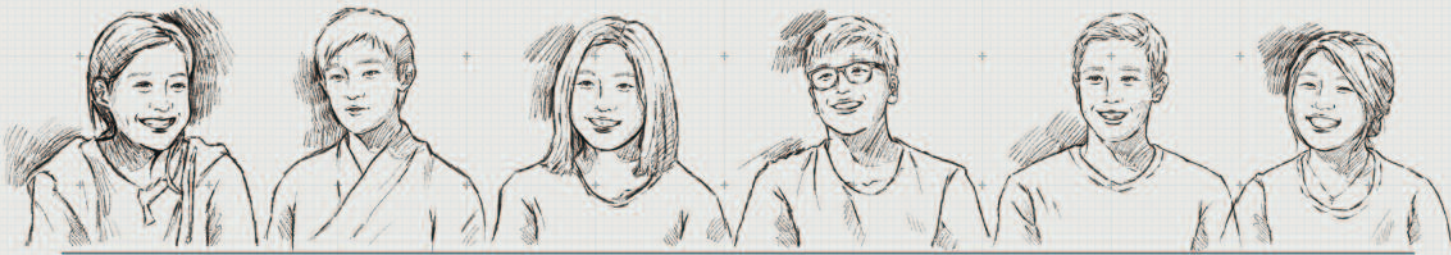
**아랍 내 미디어 선교 길 개척
인도네시아, 개국 1주년 감사**

아랍에미리트 CGNTV는 설립 3주년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세워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이집트 제작센터를 설립해 아랍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인터내셔널 미디어 팀도 구축할 예정. 또한 아랍에미리트 CGNTV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조직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9개 한인교회 및 교계 리더십들과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 CGNTV는 MCC(Media Communicators Conference)를 후원해 이슬람권 미디어 사역에 대해 연구를 이어왔다. <아랍의 한국인들> <마이카의 중동 이야기> 등 아랍의 실상을 그리는 다수의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해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왔다. 현재 차세대를 위한 다큐멘터리 1편 <아프리카를 깨우는 아이들>, 2편 <중동을 깨우는 아이들>, 자스민 혁명 4주년을 맞이한 튀니지 현장 이야기 '아랍의 계절' 1편 <아랍의 봄> 등을 제작했다.

인도네시아 CGNTV는 개국 1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0일 인도네시아 믿음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인, 인도네시아인 관계자 100여 명이 한데 모인 이번 자리는 지난 1년 사역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예배의 메시지는 믿음교회 담임목사이자 인도네시아 CGNTV 설립추진위원장이었던 이재정 목사가 맡았고, 현지 목회자인 스티븐 목사가 CGNTV에 대한 은혜를 나눴다. 또 한국선교사협의회 정영명 선교사가 이 자리를 통해 새롭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예배를 마친 저녁 7시부터는 예배 특별순서를 맡았던 한국 CCM 가수 나무엔과 뽕아맨(거리의 악사를 일컫는 말)들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4인조 팀이 출연하는 '감사 콘서트'가 약 2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CGNTV는 지난 6월 제 1기 CGNTV 방송아카데미를 열어 미디어 선교사 양성을 위한 1기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기 등록인원은 총 26명이고, 오는 11월 방송제작 전반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개국10주년 특별기획

MK의 고백

처/음/만/나/는/M/K/이/야/기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MK의 고백 : 처음 만나는 MK 이야기>

인터뷰 다큐멘터리 / 내레이션 유호정

선교사 자녀들을 부르는 고유명사가 있다. 'MK'. 'Missionary Kids'의 약자다. 어떤 그룹을 칭하는 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고유한 특징이 있고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MK'는 한국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아직 조금은 낯선 단어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화두는 이제까지 시선 밖에 일어났다.

이에 CGN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그들을 화두로 한 특별기획 <MK의 고백>을 제작했다. 인터뷰 다큐

멘터리인 <MK의 고백>은 32개국 출신 60여 명의 MK들이 참여해 직접 자신의 속 이야기를 털어냈다.

한 MK는 작품 속에서 "우리도 평범한 아이들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고백을 듣다 보면, 그 MK의 말처럼 그들이 그저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이 다시 보인다. 그들은 부모를 따라 어릴 때부터 선교지로 떠나 한국인도 선교지 현지인도 아닌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속 그들을 보면 왕따나 우



7월 31일 CGNTV 본사에서 진행된 <MK의 고백> 시사회 현장. 출연한 MK들의 부모인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울증을 겪기도 하고 언어의 한계, 외모의 차이로 적응과 소통이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선교지 중심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부모들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장한다.

그들을 대상으로 제작 전 진행된 설문 조사를 보면 초등학교 이전에 선교지로 떠난 MK가 50%를 넘는다.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답한 MK는 전체 90%가 넘지만 성인이 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MK는 반반 정도다. 왕따를 당하거나 우울증을 겪어본 MK도

50% 가까이 된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약 90%가 부모가 선교사인 것과 자신이 MK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고백했다. 이밖에도 작품 속에는 그들의 생각 외의 답변들이 그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준다.

청년 헌신자들이 줄어드는 요즘, MK들은 누구보다 선교지의 실태를 지켜본 증인들이다. 또 국제적인 감각과 언어가 겸비된 차세대 선교의 주역이다. <MK의 고백>은 그들의 현주소와 일부 내적 장벽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힐링과 함께 차세대 선교의 내일의 빛을 보여준다.

※ <MK의 고백>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com)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MK의 모습



보안 지역 MK들은 인터뷰 중 가면을 썼다.



1

Let's run together!

'Let's run together!' CGNTV <청년제자프로젝트 RUN>이 '함께 달리자!' 라는 구호를 끝으로 지난 7월 23일 마지막 회 촬영을 마쳤다. 시즌1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을 끝낸 후, '전도 그 다음 단계' 를 고심하며 시작된 이번 방송은 '프로젝트' 라는 타이틀처럼 그저 보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었다. '제자화' 를 화두로 제작진들이 '함께 달리자' 고 끝까지 시청자들에게 손을 내민 이유도 여기에 있다.

<RUN> 팀은 마지막 촬영에,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제자화를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한 자리에 초대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RUN>이 했던 이야기가 실천 가능한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에 관심이 있어 외국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흥대 노리터 플레이스에서, 열린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 촬영은 프로그램 진행자 겸 멘토였던 송준기, 제임스 런치 목사

가 진행을 맡아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오프닝 무대는 태국에서 활동 중인 힙합 선교팀 'HISPOP' 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앞뒤로 'JOHN 3 ONE SIX',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크게 적힌 의상을 입고, 목청껏 '할렐루야' 를 외치며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들은 온 몸으로 자신들의 예배를 드렸고, 그 과정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제자화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대 위에 올라온 청년 하헌철(28) 씨는 프로그램 포맷을 교회 소모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30대 정요한 목사는 교회 소모임 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맞춤 영상을 전해주고 있었다. 주부 이부영 씨는 방송을 활용해 직장인 성경공부를 하고 있고, 청년 문애실(30) 씨는 <RUN>을 통해 신우회 활동이나 택시 전도에 도움을 얻고 있었다.

<청년제자프로젝트 RUN>은 시즌1 이후 6개월의



1. 촬영을 마친 후 참석자 전원이 기념촬영
2. 힙합 선교팀 'HISPOP'을 인터뷰 하고 있는 MC 송준기, 제임스 목사
3. 'HISPOP'의 무대. 그들의 등 뒤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미하는 'JOHN 03 ONE SIX'가 적혀있다.
4.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CGNTV 촬영팀
5.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참석자들



준비기간을 거쳐 제작됐다. 프로그램 포맷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 등을 겪으며 제작진들은 각 편의 주제들을 멘토들과 직접 공부하며 준비기간을 가졌다. 담당 PD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제작진 내에서 먼저 제자화가 일어났다"며 "우리도 각자의 교회, 삶을 통해 제자화를 계획하고, 자신들의 선교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들은 직접 공부하며 출연자들이 궁금해 할 법한 질문들을 몸소 경험하며 준비했다. 방송이 되는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있었지만, 한국교회 청년들이 제자에 제자를 낳는 이 과정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처음 뿌린 씨앗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분명한 듯싶다.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및 <청년전도프로젝트 RUN>은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을 통해 전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뉴스

CGNTV, 태국 CCT 교단과 업무협약

CGNTV가 복음의 불모지 태국에 글로벌 선교의 포문을 열었다. CGNTV와 태국 CCT교단은 지난 9월 9일 업무협약을 맺고 태국 선교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CCT는 1천여 개 교회, 16만 성도가 소속돼 있는 태국의 최대 교단. 양 기관은 태국 현지 기독교방송국 설립을 목적으로 방송설립위원회를 만들어 2017년까지 함께 재정을 투자하고 인재를 양성해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나갈 방침이다. CGNTV 이재훈 이사장은 “순전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고, CCT 타이샷 마하차와룻 총회장은 “방송사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협약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마운틴> 교계 상영 활발

CGNTV 개국 1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가 국내외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활발히 상영됐다. 지난 5월 열린 ‘돌로스 네트워크 창립 포럼’,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세계 선교대회’ 등 각종 행사 및 교회 19곳을 비롯해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수련회와 국내외 기독교 대학 등에서도 상영됐다. <블랙마운틴>을 감상한 목회자 및 선교사, 성도들은 저마다 “작품이 보여주는 선교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CGNTV는 <블랙마운틴>에 이어 오는 10월 특집 다큐 2편 <잊혀진 헌신 :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가제)를 방영할 계획이다.



세계 선교대회 중계

CGNTV는 ‘코스타(KOSTA) 30주년 기념감사대회’ 및 ‘2015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주관방송사로 선정돼 두 대형 집회 현장을 중계했다. ‘코스타(KOSTA) 30주년 기념감사대회’는 세계 유학생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총 650여 명 모인 가운데 지난 8월 25~27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됐다. ‘2015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는 한인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꾀하는 집회로, 지난 9월 27~29일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에서 진행됐다.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

CGNTV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회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1회 공모전 보다 많은 총 136명이 응모했다. 응모한 수기들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 최우수상(1명) 아이패드 미니, 우수상(3명) 15만원 상당 외식상품권, 입상(5명) 성경책과 독서대, 큐티상(10명) <생명의 삶> 6개월 정기구독권 등의 부상이 수여 되고 향후 CGNTV를 통해 소개된다. 수상자 외에도 참가자 전원에게는 볼펜과 정해진 기념품 등이 증정된다.



온누리교회 장로사관학교 CGNTV 방문

온누리교회 장로사관학교 피택 장로 부부 80인이 지난 7, 8월 CGNTV를 방문했다. 온누리교회 장로사관학교는 신임 및 피택 장로들의 훈련 과정으로 매해 정한 시즌 조별로 CGNTV를 방문해 좀 더 가까이에서 CGNTV 사역을 살펴보고 있다. 그들은 이번 방문에서 CGNTV 유재건 대표이사의 안내로 CGNTV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각 부서들을 돌아봤다. 또 직원들에게 다과 등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배우이자 신임 장로인 장광 장로는 “CGNTV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 될 것”이라며 “피택 장로들도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바나바 선교회 방문

일본 바나바 선교회가 한국 교회들의 영성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 목회자들과 일본 거주 한인선교사 31명으로 구성된 그들은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등 국내 유명 대형교회들의 특화 사역 등을 탐방하고, 지난 3일 CGNTV와 CGNTV 설립자 고(故) 하용조 목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들은 온누리교회와 CGNTV가 공동주관하는 일본 복음화를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와 CGNTV 방송선교사역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복음교회연맹 이사장 오오타 마사노부 목사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뉴스

미주 CGNTV _ 개국 10주년 기념행사

미주 CGNTV는 지난 8월 13일~15일 개국 1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들을 갖고 비전을 공고히 했다. 나성영락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진행을 적극 협력해 준 가운데 13일 개국 10주년 감사예배, 14일 자문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 위촉식, 15일 리더십 조찬 모임 등이 진행됐다. 또한 14일, 15일 양일간 나성영락교회와 엘바인온누리교회에서는 각각 개국 1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도 개최됐다. 각 행사들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들이 회동해, 음악회에 총 16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고, 위촉식에서는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 박성근(LA한인침례교회), 박광철(조이헬로십교회) 목사 등 남가주의 대표적 목회자 20여 명이 자문위원을 약속했다. 미셸이 넷워드 대표, 장해규 기독교실업인회 회장, 모니카권 재외한인간호회 이사장 등 15명은 후원회 운영위원이 됐다. 또 미주 CGNTV는 이번 10주년 행사 기간인 13일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임혜빈 회장)와 MOU를 체결해 향후 크리스천 사업가 및 교회들과 사역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CGNTV _ 어린이 교회 사역 매진

어린이 교회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 CGNTV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찬양, 율동, 성경공부, 분반공부 프로그램 제작에 한창이다. 일본 교회의 어린이들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성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 이에 따라 일본 CGNTV는 일본 어린이 사역자 후지타 케이코 목사(JCMYouth대표,CS교사훈련강사)와 함께 매주 15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가을 개편을 앞두고 준비중인 <성경의 집>(가제)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메시지에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너들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이다.



대만 CGNTV _ 교회 사역자를 위한 분야별 강의 제작

대만 CGNTV는 대만 교원복음단체인 신왕아이 협회와 중국 내 교회 사역자를 위한 전문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철학, 인문학, 사회학 등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분야별 교과 강의. 지난 8월 27일~29일에는 대만에서 열린 '전 세계 학가인 복음대회'를 촬영하고 대만 CGNTV 홍보도 진행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본 집회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중국인 디아스포라 복음대회로 CGN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번체와 간체로 자막을 넣어 각각 DVD로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CGNTV _ 원전 건설 현장 CGNTV 시청

CGNTV가 아부다비 원전 건설 현장의 영적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현장 크리스천들이 최근 20여 개로 제한돼 있는 TV 채널 중, 기독교 채널로는 유일하게 CGNTV를 직접 선정해 시청하고 있다. 현장 크리스천들이 세운 바라카 교회는 CGNTV가 주중에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며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현장인력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 CGNTV와 두바이한인교회가 후원하는 제2회 MCC(Media Comuniators Conference)가 오는 10월 11일~15일 이집트, 미국, 몽골, 캐나다 등 총 20여 개국 40여 명의 미디어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진행된다.



태국 CGNTV _ 태국 교회들 사역 협력 은혜

태국 CGNTV는 지난 8월 자체 제작프로그램 <You are special> 촬영을 위해 태국 부리람 지역의 '무양부리람교회'를 찾았다. CGNTV를 처음 접한 교회의 400여 명의 성도들은 촬영에 적극 협력해 준 것은 물론 태국 CGNTV의 비전과 목표, 프로그램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태국 CGNTV를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하겠다"며 격려했다. 촬영을 담당했던 태국 CGNTV 현지인 직원 제임스는 "하나님께서 태국 CGNTV를 축복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다"며 "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 태국 CGNTV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다.



인도네시아 CGNTV _ 무슬림 속 의료사역 현장 취재

인도네시아 CGNTV는 8월 18일~9월 9일 자카르타 버가시에서 진행된 한방 의료 사역 현장W.A.M.(World Acupuncture Mission)에 다녀왔다. 총 6000여 명의 환자들이 다녀간 이번 사역은 버가시 지역의 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다녀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됐고, 의료비가 비싸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사역에서는 기간 동안 중풍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는 등 많은 치료의 효과들도 나타났다.



후원안내 CGNTV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선교사! 선교지를 품은 여러분의 손길은 세계 각국에 복음으로 선포돼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1. 정기후원

- 1) 자동이체
- 2)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

- 1) 계좌이체(or 무통장입금) : **[후원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예금주: (재)온누리선교재단)**
- 2) 신용카드 결제
- 3) 휴대폰 결제
- 4) ARS 전화후원: 060-700-1660 (전화 한 통화에 5천원)

3. 후원 신청 방법

- 1) 전화로 신청하기 ☎ **02-796-2243**
-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http://give.cgntv.net> '일시후원' 클릭
- 3)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웹 m.cgntv.net에서 후원하기 터치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 (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고현준, 구재영,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득환,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춘수,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은영,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의준, 유이상, 유주희, 윤덕순, 윤석우, 윤원식, 윤호석,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길수, 이남식, 이밖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경,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호영,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양희, 장정심, 정광택, 정용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옥형, 지성환, 차준한,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하주현, 한백진,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3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h.70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703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ch.554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https://www.youtube.com/Globalcgn))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CGNTV의 최근 소식과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
- 트위터 www.twitter.com/cgntv

시대적 사명

- CGNTV 운영위원 손한기 장로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유행을 따라 흘러간다. 돈을 위해 일하고, 돈으로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보다 더 한다. 경건과 의를 위해 손해를 보거나 공격받는 것은 꺼려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5:10)”는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런 것을 그르다 하고, 옳은 것을 옳다하는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 모습이 등장한다.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다. 그 중 5절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마지막 때일수록 경건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하다. 경건한 교회가 절실하다. 경건한 예배가 갈급하다. 경건한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한다.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물고 핍박을 당한다. 최근 스타벅스 CEO는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대통령과 대법관들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합법화했다. 또한 미국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기도를 하지 마시오”라고 공표해 이제 기도가 불붙어 됐다.

반면 2009년 21살의 미스켈리포니아 유력 후보였던 케리 프리진은 마지막 심사에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리버티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대표의 고별사 순서를 맡은 로

이 코스트너는 준비된 원고를 버리고 주기도문을 당당하게 읊었다.

현재 미국 교회는 시험대 위에 올라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피신하고 타협하면서 침묵할 것인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평안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번영신학을 전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의 진리와 가치관을 공격하는 동성애 정책들이 쉴 새 없이 입법화를 시도하고 교회는 공격 당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경건으로 무장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말세의 징조는 우리에게 희망의 표시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CGNTV의 사명은 더욱 크다. 위성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경건과 의를 열방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